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김현미
우석대학교

Relations among Work Hop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Korean College Students

Hyeon-Mi Kim
Woos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 호남, 강원, 충청권에 소재한 8개 대학교에서 수집된 29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희망과 진로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 간에는 $r=.64\sim.73$ 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따른 직업희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공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희망은 경로사고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경로사고, 주도사고, 목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직업희망 척도를 활용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직업희망,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다중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work hop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this, correlation analysis, varianc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299 data collected from 8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Yeongnam, Honam, Gangwon and Chungcheong provinc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work hope and career variable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64$ and $.73$ in each sub-factor. After performing a variance analys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work hope between gender, grades and major fields, there were no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found,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jor fields. Also,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work hope affe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pathways, and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gency, pathways thinking, and goal were influenc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using college students' work hope scal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ork hope,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직업은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생활의 터전인 동시

*Corresponding Author : Hyeon-Mi Kim(khm2606r@naver.comr)

Received December 28, 2017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19,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에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2]. 통계청의 '2017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2016년 9월에 대비하여 3만 명이 감소하였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고용률이 0.1% 상승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취업연령에 해당하는 25세부터 29세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에 대비한 고용률은 1.1% 감소되었으며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고졸이하는 감소된 반면에 대졸이상의 실업률은 0.1% 상승된 것으로 제시되었다[3]. 이와 같이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랍'의 의미를 갖고 있다[4]. 이러한 희망을 Snyder[5]는 개인의 다양한 생활 장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안정된 특성으로 보고 희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희망은 목표 달성을 추동시키며 목표 도달여부에 의해 감정에 영향을 주거나 원래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김택호와 김재환[6]은 역경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적인 청소년 집단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을 희망이라고 보고하였다.

석민경[7]은 희망과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에서 희망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정적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이다[8].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를 선택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한편 진로태도성숙도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반응경향이 동일한 연령대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직업준비도라고 하였다[9]. 따라서 진로태도성숙도는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때 자기 및 직업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희망은 Juntunen과 Wettersten[10]에 의하면 직업관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동기를 부여한다고 제시하였다. Kenny와 그의 동료들 역시 직업희망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직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실천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동기를 불어넣는다고 주장하였다[11]. 이처럼 직업희망은 성취동기를 촉진시키고, 인간 활동에 추진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직업

과 관련된 관심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Diemer와 Blustein 또한 직업적 희망을 청소년들이 경력을 쌓으면서 다양한 외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특정한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2].

국내에서의 직업 관련 희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희망 직업을 사회경제지수로 전환하여 청소년의 진로 기대감, 직업포부,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직업을 얻고자 하는 희망 직업과의 관련성 또는 희망 구인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되었다[13-15]. 희망 직업의 개념은 개인이 원하는 특정 직업인이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희망은 개인의 직업목표 여부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도적인 면과 다양한 실천력을 포함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직업희망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Juntunen과 Wettersten이 개발한 직업희망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10]. 박주현[16]의 경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하였으며 윤정안과 서지윤[17]은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동기에 직업희망의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역할지향성과 양성평등 의식이 직업희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내에서 타당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직업희망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된 직업희망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직업희망을 파악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을 할 때, 취업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개인이 바라는 직업 목표를 향해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려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희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거친 한국 대학생용 직업희망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직업희망은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강원,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해 사전 허락을 받고, 연구자가 해당 수업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응답을 중간이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9월 17일부터 2주간에 걸쳐 총 327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편향적이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28부를 제외하고 총 29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직업희망 척도

김현미(2016)가 Juntunen과 Wettersten의 직업희망척도(Work Hope Scale: WHS)를 토대로 3개 하위요인별로 6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19]. 직업희망은 총 18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희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희망 하위요인인 경로사고는 직업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고, 초기에 구상했던 계획이 장벽으로 인해 실패했을지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려는 확장된 사고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한편 주도사고는 계획한 직업목표를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앞에서도 행동하려는 실천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목표는 다양한 방법과 실천력을 갖고 이루고 싶은 미래 직업목표나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관련 목표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직업희망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2이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로사고(pathways) .83, 주도사고(agency) .81, 목표(goals) .83으로 나타났다.

2.2.2 진로태도성숙도

이기학(1997)[20]이 Crites[9]의 진로성숙검사(CAMI)

를 토대로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5개의 하위요인은 결정성(decisiveness), 목적성(goal orientation), 확신성(confidence), 준비성(preparation), 독립성(independence) 등으로 개인의 진로 결정에 관한 태도와 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기학(1997)에서는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78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결정성 .62, 목적성 .80, 확신성 .65, 준비성 .75, 독립성 .55로 나타났다.

2.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SE-SF)는 Taylor와 Betz[8]가 개발하고, Betz와 Voyten[19]이 하위요인별로 5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구성된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1]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은 총 25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5개 하위요인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으로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이기학과 이학주[21]에서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2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자기평가(self-appraisal) .76, 직업정보(occupation information) .68, 목표선택(goal selection) .75, 미래계획(planning) .79, 문제해결(problem solving)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2이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보수집 .68, 목표설정 .87, 계획수립 .72, 문제해결 .75, 자기평가 .76으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에 따른 직업희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134명(44.8%), 여학생 165명(55.2%)이었다. 학년 구성은 1학년 52명(17.4%), 2학년 106명(35.5%), 3학년 88명(29.4%), 4학년 53명(17.7%)이었다. 전공계열은 사회 74명(24.7%), 교육 70명(23.4%), 자연 54명(18.1%), 예체능 47명(15.7%), 공학 32명(10.7%) 그리고 인문계열 22명(7.4%)이었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99)

Categori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4	44.8
	Female	165	55.2
Grade	Freshman	52	17.4
	Sophomore	106	35.5
	Third grade	88	29.4
	Fourth grade	53	17.7
Major fields	Social	74	24.7
	Educational	70	23.4
	Natural	54	18.1
	Art/physical	47	15.7
	Engineering	32	10.7
	Humanities	22	7.4

3.2 직업희망의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차이

3.2.1 직업희망의 성별 차이

직업희망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t-검증 실시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총 직업희망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이 3.68, 여학생의 평균은 3.69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직업희망의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로사고(남:3.45, 여: 3.51), 주도사고(남: 3.80, 여: 3.76), 목표(남: 3.78, 여:3.79)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업희망의 하위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2. T-test on Gender differences in work hope (N=299)

Work Hope	M		SD		t	p
	Male	Female	Male	Female		
pathways	3.45	3.51	.72	.57	-.843	.400
agency	3.80	3.76	.67	.47	.711	.478
goals	3.78	3.79	.74	.61	-.215	.830
Total workhope	3.68	3.69	.65	.48	-.166	.868

p<.01, *p<.001

3.2.2 직업희망의 학년 및 전공계열별 차이

직업희망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공계열은 공학, 예체능, 교육, 자연, 인문, 사회계열의 여섯 집단으로 구분하고 F-검증과 S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년별 차이분석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직업희망의 평균은 1학년 3.60, 2학년 3.64, 3학년 3.73, 4학년 3.69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로사고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1학년 3.33, 2학년 3.45, 3학년 3.59, 4학년 3.54였으며 주도사고 평균은 1학년 3.74, 2학년 3.75, 3학년 3.76, 4학년 3.93로 제시되었다. 목표의 평균은 1학년이3.74, 2학년 3.72, 3학년 3.84, 4학년 3.86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of work hope (N=299)

Work Hope	Grade	M	SD	F	p
pathways	Freshman	3.33	.61	2.06	.11
	Sophomore	3.45	.67		
	Third grade	3.59	.63		
	Fourth grade	3.54	.59		
agency	Freshman	3.74	.63	1.53	.21
	Sophomore	3.75	.54		
	Third grade	3.76	.59		
goals	Fourth grade	3.93	.52	.87	.46
	Freshman	3.74	.71		
	Sophomore	3.72	.71		
	Third grade	3.84	.65		
Total workhope	Fourth grade	3.86	.58	1.32	.27
	Freshman	3.60	.55		
	Sophomore	3.64	.58		
	Third grade	3.73	.49		
	Fourth grade	3.69	.56		

전공계열별 차이분석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직업희망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목표에서 전공계열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사고의 경우 교육계열 3.84, 예체능계열 3.44, 사회계열 3.42, 자연계열 3.41, 공학계열 3.20, 인문계열 3.30로 교육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사회계열이었다. 주도사고의 경우 교육계열 3.97, 공학계열 3.82, 자연계열 3.77, 인문계열 3.75, 사회계열 3.75, 예체능계열 3.56로 제시되어 교육계열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 자연계열로 확인되었다. 또

한 목표의 경우 교육계열 4.12, 사회계열 3.79, 자연계열 3.76, 예체능계열 3.65, 인문계열 3.59, 공학계열 3.51 순으로 교육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계열, 자연계열 순이었다. 전공계열별로 직업희망의 평균을 살펴보면, 교육계열 3.98, 자연계열 3.65, 사회계열 3.64, 예체능계열 3.55, 인문계열 3.55, 공학계열 3.51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according to major fields of work hope (N=299)

Work Hope	Major fields	M	SD	F	sheffe
pathways	Engineering(a)	3.20	.69	6.86**	a<c a, e, d, f, b<c
	Art/physical(b)	3.44	.67		
	Educational(c)	3.84	.50		
	Natural(d)	3.41	.65		
	Humanities(e)	3.30	.53		
	Social(f)	3.42	.62		
agency	Engineering(a)	3.82	.55	3.20**	b<c
	Art/physical(b)	3.56	.63		
	Educational(c)	3.97	.42		
	Natural(d)	3.77	.65		
	Humanities(e)	3.75	.53		
	Social(f)	3.75	.57		
goals	Engineering(a)	3.51	.69	5.90**	a<c a, e, b, f<c
	Art/physical(b)	3.65	.70		
	Educational(c)	4.12	.47		
	Natural(d)	3.76	.70		
	Humanities(e)	3.59	.64		
	Social(f)	3.76	.69		
Total Work Hope	Engineering(a)	3.51	.57	5.86**	a<c a, b, f, d<c
	Art/physical(b)	3.55	.63		
	Educational(c)	3.98	.41		
	Natural(d)	3.65	.59		
	Humanities(e)	3.55	.46		
	Social(f)	3.64	.54		

**p<.01

3.4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는 0.337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11.3%(F=12.589, p<.05)로 나타났다. 직업희망 중에서 경로사고(.30, p<.01)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희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0.782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업희망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61.2%(F=154.864, p<.05)이었다. 직업희망 하위요인인 경로사고(.35, p<.01), 주도사고(.31, p<.01), 목표(.22, p<.01) 순으로 모두 유익하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직업희망의 하위요인 가운데 경로사고만이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직업희망,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치를 분석 결과에 의하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직업희망의 하위요인들은 평균 3.49이상이었으며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Table 5. The effects of work hop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99)

DV	IV	B	SE	β	t	p	TI
Career Attitude Maturity	(Constant)	2.507	.119		20.990	.000	
	pathways	.149	.041	.303	3.654	.001**	.436
	agency	.037	.044	.067	.838	.403	.476
	goals	-.008	.042	-.017	-.189	.850	.377
	R=.337, R ² =.113, F=12.589, p=.000, Dubin-Warson=1.74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nstant)	.784	.126		6.206	.000	
	pathways	.275	.043	.350	6.364	.000**	.436
	agency	.276	.046	.313	5.946	.000**	.476
	goals	.162	.044	.216	3.664	.000**	.377
	R=.782, R ² =.612, F=154.864, p=.000, Dubin-Warson=2.118						

*p<.05, **p<.01

요인 모두 평균 2.73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희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의 각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직업희망 간에는 정적 상관을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8, 17]. 반면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 목적성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 시 경제적 보상이나 승진 기회 등의 현실적인 요소보다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의 개인의 선호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직업관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직업희망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별 및 학년별, 전공계열별 직업희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별 직업희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전공계열별 직업희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계열일 경우에 직업희망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경로사고, 주도사고, 목표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경로사고는 예체능계열(M=3.44), 주도사고는 공학계열(M=3.82) 그리고 목표는 사회계열(M=3.76)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경로사고는 사회계열(M=3.42), 주도사고는 자연계열(M=3.77), 그리고 목표는 자연계열(M=3.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계열의 학생들은 직업관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직업희망 수준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학생들이 직업관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려는 경로사고가 다른 전공계열과 달리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도사고는 교육계열과 공학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 전공계열 학생들이 타 전공계열에 비해 자신들이 세운 직업관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도적인 수행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직업희망의 하위요인별로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희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영향은 11%이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은 61%로 높게 제시되었다. 이로써 직업희망은 진로태도성숙도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더 높은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태도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희망의 하위요인은 경로사고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관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행동하려는 경로사고를 강화하는 집단 및 개인상담 그리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사고와 경로사고, 목표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직업희망의 하위요인 경로사고는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직업희망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사고와 목표가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직업희망은 대학생들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피상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업정보를 수집하여 미래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미래에 일하고 싶은 직업은 어떤 것인지? 그 직업에서 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직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 자신의 적성 탐색과 이해를 넘어서 미래의 진로 목표에 이르기 위한 면대면 진로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희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진로경로와 관련된 자신의 개성과 흥미를 찾고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직업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교수 및 전문상담사와의 개인 상담을 비롯하여 집단교육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학생활을 미래 직업과 연결하여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행동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강원, 충청권

에 소재한 8개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역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직업희망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직업희망 척도는 김현미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희망을 고찰하기 위해 타당화 작업을 거쳐 개발한 것을 처음 사용한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진로변인과의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희망이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기 위해 그에 타당한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증을 거친 직업희망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가 대학생들의 직업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희망을 높이기 위해 준비할 요인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Ginzberg.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3), 169-175.
- [2] A. H. Maslow.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3] Statistics Korea. (November, 2017) *Employment Trends, September 2017 Employment Trend Repo*. <http://kostat.go.kr/portal/korea>.
- [4]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ovember 13, 2017) <http://stdweb2.korean.go.kr>
- [5] C. R. Snyde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6] T. H. Kim & J. H. Kim. (2004).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3), 465-490.
- [7] M. K. Seok. (2011). The Effect of Hope and Ego-Identity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1), 40-59.
- [8] K. M. Taylor & N. 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9] J. O. Crites.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 [10] C. L. Juntunen & K. B. Wettersten. (2006). Work Hop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94-106.
- [11] M. E. Kenny, L. Y. Walsh-Blair, D. L. Blustein, J. Bempechat & J. Seltzer. (2010).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Urban Adolescents: Work hope, Autonomy Support, and Achievement-Related Belief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205-212.
- [12] M. A. Diemer & D. L. Blustein.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13] Y. K. Au. (2008). A Multilevel Analysis Adolescents' Changes on a Feeling of Career Expectation and Job Aspiration Statu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4), 81-108.
- [14] H. J. Yoo, K. H. Kim, I. C, Shin & B. D. OH. (2013). Youth Occupational Aspiration and Mismatch between Desired Occupation and College Major Choice in Korea. *The Journal of Vocational Cducation Research*, 32(6), 91-110.
- [15] J. H. Kim. (2014). The Career Decision Making Experience Appeared in Career Stories of College Students Whose Majors Mismatch Their Desired Job.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4), 993-1021.
- [16] J. H. Park. (2011).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7] J. A. Yoon & J. Y. Seo. (2013). The Effects of Work Hope and Career Motivation on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55-81.
- [18] Y. J. An. (2014). A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Role Orienta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and Work Ho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167-193.
- [19] H. M. Kim, (201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hope scale for korean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Chonbuk.

- [20] K. H. Lee.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1]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김 현 미(Kim, Hyeon Mi)

[정회원]



- 2010년 8월 : 전주대학교 상담학 (상담학석사)
 - 2016년 8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 (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2018년 현재 : 우석대학교학생상담센터 선임상담위원
- 관심분야 : 진로상담, 집단상담, 게슈탈트심리상담
- E-Mail : khm2606@naver.com